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2월 호)





〈사진: 김용환 교수〉

저는 2026년 3월 1일부터 Claremont School of Theology(CST)의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DPC) Co-Director로 섬기게 된 김용환 교수입니다. 제 선생님이셨고 임상 수퍼바이저 그리고 멘토이신 이경식 수석 부총장님과 함께 DPC 과정의 Co-Director로서 섬기게 되어,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는 한편 새로운 역할을 통해 더 성숙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칩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전문 상담자로서의 정체성과 실제 임상 역량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제가 맡은 중요한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학위 과정이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 한국어권 전문 상담자들이 자신의 문화와 신앙, 그리고 임상 현장을 통합적으로 성찰하며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여정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학생들과 함께 질문하고 배우며 동행하는 Co-Director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실천신학과 상담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오랜 기간 목회, 상담, 교육, 그리고 행정을 경험해 온 실천신학자이자 상담교육자입니다. CST에서 Spiritual Care and Counseling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계 미국인 노년 기독교인들의 절망 경험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실천신학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토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저의 학문적 관심은 노년기 발달, 영적 돌봄, 가족 관계, 그리고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상담 실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mory University에서 목회신학 석사 과정을 통해 노년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화해를 주제로 연구하였고, 이후 한국과 미국의 다양한 교회 및 상담 현장에서 세대 간 갈등과 노년기의 상실, 우울, 의미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의 연구와 교육이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상담 장면과 목회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이끌어 왔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청년부, 교육부, 그리고 노년 사역을 담당하며 다양한 생애주기와 문화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섬겨 왔습니다. 동시에 CST 산하 The Clinebell Institute에서 상담 레지던트로 훈련받으며 전문 상담 역량을 갖추었고, 이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상담심리학 교수 및 디렉터, 상담소 소장으로 섬기며 상담 교육, 임상, 그리고 행정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경험해 왔습니다. 현재는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차세대 상담자와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적 연구 또한 중요한 소명으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년기 에이지즘(ageism), 웰빙, 자서전 그룹을 통한 돌봄, 그리고 인지행동치료는 제가 꾸준히 탐구해 온 주요 연구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외 학술지와 단행본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한국어권 및 디아스포라 맥락 속에서 전문 상담과 영적 돌봄을 통합하고자 하는 DPC 프로그램의 정체성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DPC 프로그램이 꾸준히 성장하여 제 모교에 공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상담 영역에서도 좋은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봄학기 인텐시브 워크를 마치며 단체사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2026년 봄학기 인텐시브 워크를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Los Angeles campus에서 진행했다. 이번 인텐시브 워크에는 약 30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총 세 개의 집중 강좌가 열려 한 주 동안 수업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번 인텐시브 워크에서는 정규 강좌와 함께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Community Course’도 함께 운영했다. 이번 공개강좌는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500달러의 수강료에 이동과 식사, 박물관 입장이 모두 포함되었다. ‘Theology as Testimony: Space, Practices, and Legacies of Japanese American Detention in Los Angeles’를 주제로 한 이 과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이 겪은 강제수용의 역사와 그 안에서 형성된 신앙과 공동체의 삶을 다루었다. CST 학장 직무대행인 유키 슈워츠가 맡아 진행한 이 수업은 예술 작품과 종교 의례, 신학 텍스트, 공동체의 증언을 중심으로 폭력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신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강의실 수업과 더불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일본계 교회와 기념 공간, 박물관을 방문하는 필드트립도 포함했으며, 참가자들은 공동체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를 직접 걸으며 역사와 신학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텐시브 워크 기간 동안 여러 교회의 후원으로 매일 점심 식사가 마련돼 학생들은 함께 풍성한 식탁을 나눴다. Glendale First UMC, United University Church, Valencia UMC, Tujunga & La Crescenta UMCs, Kardia UMC 등 지역 교회들이 식사 후원에 참여하며 배움의 자리를 섬겼다. 여기에 학생 Hanna Jang의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김밥도 더해져 식탁은 더욱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 됐다. 점심 시간마다 학생들과 교수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사역과 삶의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 함께 먹고, 함께 보고, 함께 나누며 깊어지는 인텐시브의 공동체〉

CST 2026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D.Min.) 한국 집중 수업 소식: 갈등의 세계에서 치유와 변혁을 사유하다

세계화와 지역성이 교차하는 글로컬(Glocal)의 시대,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실천의 통합을 모색해온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의 2026년 한국 집중 수업이 지난 1월 5일부터 16일까지 대전 목원대학교에서 열렸다. 20명의 목회학 박사과정 학생과 6명의 외부 참관인이 참여한 이번 여정은, 단순한 수업을 넘어 배움의 공동체가 구현하는 치유와 연대의 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사진: 강남순 교수와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모습〉

첫 주차는 강남순 교수가 「코스모폴리탄 리더십: 글로컬 갈등의 세계에서 치유와 변혁」 수업을 진행했다. 강 교수는 리더십을 단순한 기능적 기술로 규정하는 관성을 지적하고, 비판적 사유를 통한 개념적 지형의 재구성을 제안했다. 수업 첫날, CST의 정신이 깃든 엠바고 노트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전달하며 시작된 강의는 지식 전수를 넘어선 ‘사유의 연대’를 상징했다. 매 수업 제기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보다,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가”라는 성찰적 질문은 수업 참여자들의 고정관념을 흔들었다. 개념은 종이 위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목회 현장과 삶 속으로 깊숙이 번역되었다.



〈사진: 우진성 교수와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모습〉

이어진 2주 차 수업에서 우진성 교수는 「신약성서에 나타난 갈등 해석, 치유 및 화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실천신학과 성서, 목회에 대한 깊이를 더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갈등 양상을 정밀하게 추적하며, 갈등이 파멸이 아닌 새로운 관계로의 도약이자 치유의 전주곡임을 성서적으로 해석했다. 성서해석학과 바울신학, 그리고 한국 기독교사를 관통하는 거시적 통찰은 텍스트를 고대에 가두지 않고 오늘의 현실로 불러냈다. 학생들은 갈등의 한가운데서 아가페의 언어로 공동체를 세워갔던 바울의 숨결을 배우며, 목회적 갈등을 치유와 회복의 기회로 전환하는 화해의 리더십을 체득했다.

이번 집중 수업은 CST가 지향하는 학습 공동체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목원대학교 이희학 총장의 따뜻한 환대와 권진호 신학대학장의 지원은 학문적 탐구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 유장환 대외협력부총장의 환영과 2026년 졸업 예정자들의 후원금 전달식 그리고 2025년 졸업생들과 천성교회(한동수 목사, CST 동문)의 식사 지원은 배움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공동체적 헌신으로 확장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문 부부들(박동식, 이선진, 이상수, 최세헌 박사)과 CST 한국 총동문회(회장 최신성 목사), 대전에서 목회하는 나영균 박사 등 CST 동문들이 보여준 환대는 이 배움의 여정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경험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수업 중간의 즐겁고 통쾌한 웃음들은 치유와 변혁이라는 주제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싹표였다. 2주간의 여정을 통해 뿌려진 사유의 씨앗들은 이제 각자의 목회 현장에서 치유의 열매와 변혁의 꽃으로 자라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수업에 협력한 목원대학교 관계자들과 깊은 통찰을 나눠준 교수진, 그리고 진지한 성찰에 임한 목회학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사진: 김태광 목사, D.Min. '25〉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검단에서 만나 교회를 섬기고, 2025년 12월에 졸업한 김태광 목사입니다. 그동안 개척하고 단독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깊은 고민 끝에 CST 목회학 박사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문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대로 반드시 목회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입학 후 CST에서 배운 수업들과 동문과의 경험은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변화에 놀랐고, 여전히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CST라는 학문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채우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던지시는 질문에 대한 저의 응답이었고, 저의 신학적 지평을 넓히고, 목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치열한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실천 연구 프로젝트를 마칠 무렵 그동안 배웠던 모든 수업이 총망라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마등처럼 스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CST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교수님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의미로 제가 배웠던 수업들 속에서 소회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경계를 넘는 환대와 공존'을 배웠습니다. CST의 신학은 학문의 세계가 활짝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저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풍성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특히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배타적 벽을 허물고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대의 영성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임을 배웠습니다.

둘째, 저의 신학적 핵심인 '상호 긍정의 신학'의 초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호 긍정은 단순히 서로를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CST에서 만난 다양한 신학적 담론들은 제가 연구해 온 상호 긍정의 관점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비판과 정죄보다는 격려와 긍정으로, 갈등보다는 조화로 나아가는 이 신학적 실천이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지 그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성찰하는 실천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목회학 박사 과정 동안 저는 학문적 탁월함과 목회적 영성의 균형을 강조하는 CST의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 설교자를 넘어 시대의 징조를 읽고 성도들의 고통과 기쁨에 신학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배움을 섬기는 만나 교회와 이 지역에서 또 구체적인 현장에서 꽃피우고자 합니다. 저는 개척 초기부터 '열정, 열심, 열매'라는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의 미래 목회를 어떻게 수행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호 긍정의 목회라는 분명한 답을 듣고 목회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뵈뵈니다.

졸업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인내와 기도로 이끌어 주신 교수님들과 동료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ST에서 얻은 이 귀한 영적 자산들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상호 긍정의 화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날까지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진: 지수옥 목사〉

저는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3학기에 재학 중인 지수옥 목사입니다. 3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수업의 소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깊이 고민해 온 주제 중 하나는 Input과 Output의 균형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본질적으로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이기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충분한 Input이 없다면, 전달되는 메시지는 시의성을 잃거나 과거의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언어의 빈곤을 경험하게 되고, 급변하는 시대를 해석하고 설명할 이론적 근거 또한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목회 현장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마주해 온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지적 사고의 깊이가 더해지고 신학적 사유의 폭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사유를 흔드는 지적 자극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저를 더욱 깊은 사유의 세계로 이끌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강남순 교수님의 「Cosmopolitan Leadership: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a World of Glocal Conflicts」 수업을 통해, 불평등하면서도 서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 코즈모폴리탄적 가치와 책임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치가 단순한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8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이론적 개념을 접하며 사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매 수업마다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며 이 수업의 밀도와 깊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진성 교수님의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New Testament」 수업을 통해 성경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을 이전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학기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목회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며, 각자의 신학적 통찰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경험은 제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로의 목회 환경과 현실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우고 성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움의 과정이 가능하도록 헌신해 주신 김남중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업 일정을 세심하게 조율하시고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 또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이 배움의 시간이 맡겨진 공동체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성숙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김상중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이며, 현재 광주무돌교회에서 10여 년간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CST 목회학 박사과정 2학기를 마친 김상중 목사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학업의 과정은 저의 의지보다는 주변에서의 추천과 특별히 아내의 많은 응원으로 인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부학장이신 김남중 교수님의 세밀한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수업을 준비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부족한 저를 통해 이뤄가고자 하시는 강한 부르심을 느끼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학기, 오현선 교수님의 “Transforming Self and Educational Ministry in the Multicultural World” 수업은 식민화 된 고정관념과

대면하고 잠재의식 속에 침체해 있는 쉼도우(상처, 자기연민)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내면의 상처를 알고 치유할 때,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치유와 변화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로 배제된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들의 정체성을 교회가 어떻게 입증하고 함께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 Zoom 수업은 오히려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대전 목원대에서 진행된 2학기 겨울학기 수업은 우진성 교수님의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New Testament’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저의 목회적 관점을 깊이 있고, 넓게 정립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간적 고뇌와 그가 끝까지 붙들었던 ‘예수의 삶’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우려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된 오늘날의 교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장 이전에 교회의 정체성인 아가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함께 수업을 들었던 목사님들의 얼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 대면 수업을 통해 이 시대에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목회자분들을 직접 만나게 된 듯하여 마음에 울림이 여전합니다.

남은 학기 동안에도 지식의 습득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동역자 여러분께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성혁제 목사〉

2026년 겨울학기부터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성혁제 목사입니다. 신학교 시절 막연하게 생각했었던 유학의 꿈을 접은 뒤 사역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동역하며 먼저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마친 2명의 선배 목사님을 보고 저 역시도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때 클레어몬트 동문이신 곽주환 담임목사님의 배려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주 수업은 강남순 교수님의 ‘Cosmopolitan Leadership: Healing and Transformation in a World of Glocal Conflicts’였습니다. 매일 다양한 개념들을 나만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시간과 무의식적으로 읽어왔던 성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내가 정의해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정의’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 수업은 우진성 교수님의 ‘Interpreting Conflict,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New Testament’였습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겪었던 갈등을 통해 지금의 목회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개체교회를 담임하시며 연구와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고민과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해결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16년 만에 신학 수업을 들으며 ‘이것이 무슨 말인가’하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막함은 오히려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 되었고, 현장에서 부딪혔던 많은 고민에 대한 답을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과 열정이 있는 동료 목사님들의 도움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의 순간을 잊지 않고, 앞으로 함께 하게 될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이어질 수업과 동료 목사님들과의 대화도 기대됩니다. 서로의 경험과 신학적 관점,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며 더 깊고 넓어질 것에 설렙니다. 또한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함께 치유를 꿈꾸는 현대의 동역자들과 함께하기에 남은 학업의 여정이 든든합니다.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모두 박사가 될 것을 소망하며 클레어몬트 첫 학기의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유윤선 상담사〉

이번 학기에 수강한 “노인 상담”과 “상담 윤리”과목은 저에게 이론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상담 사례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이 실제로 향상되었음을 분명히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 상담” 과목을 통해서는 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쇠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발달의 과정이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노화와 정신질환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진단과 개입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못지않게 보호자와의 탄탄한 동맹이 중요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내담자의 보호자와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려는 노력을 곧바로 현장에 적용하였고, 이는 노인 상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실제 임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상담 윤리 과목 역시 제 임상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익숙하다는 이유로 충분히 숙독하지 못했던 학회의 윤리강령을 이번 수업을 통해 더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례의 윤리적 딜레마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윤리적 판단이 개인적 감각이나 직관이 아닌, 명확한 구조와 논리에 기반해야 함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담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고,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은 소속된 학회나 협회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민감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장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제를 세심하게 읽고 남겨주신 교수님의 꼼꼼한 코멘트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로서 학문을 진지하게 대하고, 배움을 현장에 잘 담아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과목은 진행 중인 상담 사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더없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배운 내용들을 임상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뿌듯한 마음을 안고, 다가올 새 학기를 기대합니다.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전문상담 박사 과정 입학 설명회

프로그램 소개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나 관련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으로써 교회, 지역 사회, 학교, 비영리 기관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변화와 치유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학위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목회상담과 영성통합심리치료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CST는 많은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그중에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로서 종사하는 동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CST는 이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ST의 목회 상담 분야는 목회상담에서 영성 통합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목회 또는 기독교적 상담만이 아닌 초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영성통합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CST의 Ph.D. 프로그램은 CST의 가장 오래된 정통을 자랑하는 학위입니다. 더 나아가 CST는 15년 이상 한인 목회자를 위한 한국어 박사 학위(D.Min.)를 제공해 왔으며, CST의 학위 과정은 충실한 내용,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이 학과 과정은 여러분을 위한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CST의 전문 상담 박사 과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입학설명회 일정

장소 및 시간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 오전 09:00시 (Zoom ID 883 000 4676)

2월

14일, 28일

3월

14일, 28일

4월

11일, 25일



Zoom
설명회
참여 링크

학제에관하여

DCP 과정은 총 36학점(한 과목당 4학점) 과정이며 2년동안 5세션이 진행됩니다. 수업은 대면, 온라인, 하이브리드 포맷을 절충하여 섞어 진행합니다. 학위 과정 중 선택적으로 단체 미국 수학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CST의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교수진

이경식, Frank Rogers, Jr.,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남중, 김정희, 송민환, 김지훈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석사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또는 관련 분야)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1)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상담학 석사와 더불어 기초 신학 과목(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을 학부 또는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자
- 신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 신학 과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5기생은 26년 5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한글로 제공하는 입학 원서 작성 문서를 여기에서 다운 받으세요.)

등록금/장학금

등록금은 한 학점당 미화 \$ 1,100이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논문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한국교육학습정보관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지도 교수 2명의 논문 지도를 받으며 논문 최종 단계에서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졸업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3일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와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임용빈 장로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3일 기준): \$86,920

- | | |
|------------------------------------|-------------|
| - KEF 잔액(1990.03 - 2026.02): | \$2,511,654 |
| - KLS 잔액(2018.10 - 2026.02): | \$866,918 |
| - General Fund(2024.03 - 2026.02): |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 목사)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본 명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3일 기준): \$14,200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인 석좌교수 기금

— 2026년 2월 기준 —

기부자(TBA)

기부총액 (2026년 2월 3일 기준): \$300,000